경북도, 신성장동력 항공·메디컬산업 힘찬 출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준공

경상북도는 미래 新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전자산업과 바이오메디컬산업의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14일 오후 영천시 녹전동소재 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 준공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원 부원장, 송경선 공군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도와 시의원 등 5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경상북도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기반 창출을 위해 탄소산업, 차세대 기계부품산업, 백신산업, 항공전자 산업, 화장품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핵심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발맞추어 신산업 환경의 다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과제 발굴과 국책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의 급격한 다변화로 드론, 사물인터넷, ICT 등 산업간 융합이 심화되고 첨단화되는 시점에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의 준공식을 계기로 경북도는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한 발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전자 부품의 시험·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항공부품의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어 국내 중·소 항공 기업에서 개발한 전자부품 시험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영천시 녹전동에 연면적 3천358㎡ 규모의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를 준공하고 2018년 6월까지 시험장비 32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은 첨단 융복합체인 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북만이 갖춘 IT산업(구미), 자동차 소재·부품 가공벨트(경주~영천~경산~칠곡 중심), 방산산업(K2, 공군군수사령부), 항공기반(대구·포항·예천·울진 공항)을 클러스트화하고 항공소재로 각광 받는 탄소와 타이타늄 산업을 항공전자산업과 연계해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시 중앙동·화산면, 150만㎡)에 항공전자산업 직접화 단지(에어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항공기업과 연구소가 위치하는 아시아 대표 항공전자부품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항공기 인테리어, 항공기 복합재 부품 수리, 무인항공기 등 항공분야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전시험평가센터 앞에 있는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에는 항공전자 부품의 결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다기종 항공전자시험시스템(BMATS)이 구축되어 있어 공군의 전투력 향상은 물론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협력이 기대된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항공산업을 IT, 소재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항공전자분야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분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병조직에 집적 접근하는 치료시술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

인체에 삽입하는 튜브 카테터, 스텐트, 투관침, 주사기류 등 비전자의료기기산업은 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소모성 의료기 시장은 2012년 기준 1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인다.

하지만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생산 공정 환경과 제조기술 수준이 낮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2012년 기준 5천7백억 원 적자) 정책적인 산업기반 구축과 기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경북도는 2013년부터 319억 원(국비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천시 녹전동에 부지 8천346㎡, 연면적 2천994㎡(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출실, 압출실, 바이오실험실, 공동실험실, 클린룸, 전자선 멸균시설 등을 갖춘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를 구축했다.

이로써 소모성 의료기기의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벤처형 기업이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품질인증과 제품화 지원, 더 나가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받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도는 향후 2022년까지 소모성 의료기기 분야에서 수입대체 250억 원, 고용창출 500명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전자의료기기 컨트롤타워인 구미 IT의료융합기술센터와 경산의 첨단 메디컬섬유센터, 영천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를 연결하고 안동의 백신산업, 포항의 세계 최고수준 광가속기 신약을 융합해 경북형 첨단 메디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은 자동차부품 일변도의 지역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7대 신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해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항공과 바이오융합기술은 향후 제조업의 보편적 기술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도가 항공전자시스템과 바이오메디칼 분야에 과감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산업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격려사에서 "철강과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 제조업은 더 이상 미래먹거리 산업이 아닌 것이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는 자동차제조 정밀기계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기술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항공전자와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과 투자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말해 향후 신산업육성에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달성습지, 흑두루미 도래지 명성 되찾는다

대구시는 과거 흑두루미 최대 도래지였던 달성습지의 위상을 회복하고 철새들이 다시 찾아드는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올해 10월 초부터 달성습지 하중도에 약 132천㎡ 규모의 철새 먹이터를 조성하는 등 철새 서식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대구 도심의 허파이자 생태의 보고인 달성습지는 지난 1960~1970년도에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였으나 그동안 산업화로 인해 인근 지역에 공단과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도로가 조성되는 등 철새 서식환경 여건이 악화되어 철새 도래 개체수가 점차 감소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달성습지 하중도가 복원됐으나 습지 주변에 철새 먹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토가 부족해 이번 달 14일까지 달성습지와 하중도에 약 132천㎡의 면적에 수풀 제거 후 모래톱을 조성하고 청보리를 파종하는 등 철새 먹이터를 조성했다.

아울러 10월 중순부터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 달성군, 고령군 등 관련 기관별로 철새먹이 공급 책임구역을 지정해 내년 3월 말까지 약 10톤 정도의 충분한 먹이를 공급한다.

또 달성습지 하중도 주변에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소음, 불빛 발생 등 철새 교란행위를 지속해서 감시·계도해 철새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경북도, 보육서비스 향상 도모

신규 지정 16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서 수여

경상북도는 14일 오전 도청강당(화백당)에서 올해 신규 지정된 16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했다. 도는 올해 16개소를 지정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총 129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며 총 7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12월 말까지 1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이로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7.8%가 공공형어린이집이 차지하게 되어 민간영역에서 공보육의 기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매월 1회씩 자율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지정된 어린이집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정해진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은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수, 반 수, 아동현황 등을 토대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정부지원단가 외에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를 적게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급하며 취약계층(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등)의 보육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이원경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자율공부 모임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천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추가도입 실시

김천시는 17일 시청 전정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통수단(일명 행복콜)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박선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장 및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운행하며 운행구역은 시내 전역과 병원 이용을 목적하는 김천시와 연접한 시·군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추가도입으로 김천시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